



서장

역사 발전과 사회사상의 역할

역사발전과 사회적 의식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인류의 생존과 진보는 끊임없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이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생활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나 물질적 대사과정에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이나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 동물의 경우를 보면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자료를 그대로 채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때 자연에 작용을 가하는 도구도 동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기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동물이 자연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란 결국 자신의 신체기관을 직접 자연에 적용시켜 자연이 제공하는 식물(食物)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간의 물질대사과정은 스스로 노동생산물을 만들고, 이것을 매개로 하여 자연에 작용을 가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 인류는 자연을 지배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연에 작용을 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생산물, 즉 노동 수단이나 원료, 재료 등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기관의 제약성을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물질대사과정과 그 기초가 되는 노동과정을 인간 스스로 편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은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온 원천이 된다.

그런데 인간의 물질대사과정은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고, 따라서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인간이 자연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의 총체, 즉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켜 자신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생산력은 노동수단의 발전과 노동과정에서의 결합방식에 달려 있는데, 이것들은 역사에 따라서 뚜렷이 구분되는 단계들을 거쳐 왔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인간의 경제생활은 그 시대

의 특정한 생산력 구조 위에서 전개된다는 성격을 띠게 된다.

한편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과정에서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노동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집단적으로 노동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연에 작용을 가하는 동물의 경우, 물질대사과정이 개별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물질대사과정이 인간 스스로 만드는 노동생산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인간의 물질대사과정에는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관계가 있게 되며, 이 관계 또한 역사적 시기에 따라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며 변화되어 왔다. 이처럼 인간의 물질대사과정, 즉 경제생활이 특정한 역사적 단계의 산물이며,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 개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시키려는 인간의 의도 또한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름에 따라 특정한 역사적 형태를 띠게 됨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연을 개조할 때 노동생산물을 중간에 개입시킴으로써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인간 노동과의 직접적 관계로부터 분리된다는 매우 중요한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중간에 개재된 노동생산물, 즉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노동생산물이 분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와 같은 경제생활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인간의 사고를 가장 깊은 곳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물질대사과정, 즉 경제생활의 성격이다. 어떤 시대의 경제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경제생활과 이 과정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 또는 자연과 정신 가운데서 무엇이 보다 일차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 이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철학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물음에 답해 왔고, 또 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인식론의 영역을 넘어서 역사와 사회발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대답은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관계라는 문제로 바뀐다.

사회적 존재란 사회의 물질적 생활과 그 생산 및 재생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생산활동과 인간 자신의 재생산을 포함하여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 즉 생산관계와 가족, 계급, 민족 및 다른 형태의 사회생활의 물질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란 인간의 관념 및 의식 활동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영된 사회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 반영은 물론 정확한 것일 수도,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발전, 특히 사회발전은 하나의 자연사적인 과정(natural historical process)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연사적 과정이란 그것이 자연의 운동 및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합법칙적이고 필연적이며 객관적인 과정, 즉 인간의 의지나 의식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지나 의식을 규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 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보다 일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존재가 일차적인 것은 그것이 사회적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사회적 의식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차적이다. 즉 사회생활의 체계와 사회발전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의식이나 사상적·정치적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과 개인과 사회계급의 사상과 지향이나 목적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와 사회의 발전은 하나의 자연사적인 과정을 이루면서 동시에 단순한 자연의 여러 과정과는 달리 인간 자신의 활동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 자신이 어떤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인간에 의해 역사과정이 창조된다는 사실과,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의식과는 무관한 어떤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얼핏 모순되는 듯 보이는 이 관계는 인간들, 특히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대규모의 인간 집단들이 그들의 목적

을 추구하며 특정한 이해관계, 생각, 희망 등에 의해 유인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의지나 희망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나 이해관계, 생각, 감정 등의 방향과 성격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자신이 자신의 사회적 생활을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사회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산과정에서 맺어진 사회적 관계들의 성격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거나, 이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생활상의 필요 때문에 노동하고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그들 행위의 결과물을 교환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경제적 관계는 그들의 의식적인 선택이나 소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이룩해 낸 사회적 생산력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3. 사회적 의식의 상대적 독립성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의해 규정되는 동시에 일정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령 현실에서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조응하는 사회 의식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적 의식의 개혁과정은 상이한 사회집단 사이에서는 물론 하나의 특수한 집단이나 개인들에서조차 항상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의식 사이에서도 발전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존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에 비해 현실과의 관련이 비교적 적은 철학이나 윤리학은 발전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다 많이 갖는다.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사회적 의식의 적극적인 역할은 이러한 상대적 독립성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의식의 상대적 독립성은 그 형태 간의 상호관련이나 상호영향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 형태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의해 규정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의식 형태의 발전과의 관련에 의해서도 특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결된다. 가령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철학과 예술이 여러 형태의 사회의

식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다. 중세 유럽에서 종교는 철학, 도덕, 예술, 정치사상 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계몽주의 시대 Age of Enlightenment 에는 철학과 문학이 인간 개개인의 발전과 중세적인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위한 운동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철학과 문학이 이러한 운동에서 수행한 역할은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의 특수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조건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러한 진보적 철학 및 문예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결과였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의식 또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발전을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의식이나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사회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정이나 법칙들을 인식함으로써 그 자연발생적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발전의 법칙과 추동력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만 의식적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사회진보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 2 절

사회적 의식의 여러 형태

1. 사상

사상^{thought}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고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사유^{思惟}의 내용을 말한다. 우리의 인식은 항상 무엇에 대하여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고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사고작용은 어떤 내용을 낳는다. 그리고 이 내용에 체계성과 통일성이 주어질 때 그것은 한 사상의 견해, 관념, 개념 등의 형태를 취한다. 한편 시대적 현실 속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정당하게 대처하여 의미 있

는 행동을 하는 데 실천적 기준이 되는 것을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의 사상은 각 시대의 개인, 사회, 민족, 인류 속에 잠재하여 그 시대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을 지도하며, 때에 따라서는 변혁까지 일으킨다. 여기에 이르면 사상은 단순한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설說’, ‘...주의主義’, ‘...교敎’ 등의 표현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사상은 이상과 정의 또는 선악과 관계를 맺게 된다. 또 예술적 미추와 문화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과 관련해서도 사상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2. 철학

철학^{philosophy}이란 세계 전체 및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견해로서 종교나 신화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정리된 견해를 가리킨다. 그 어원을 더듬어보면, 철학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B.C. 540?-B.C. 480?}와 헤로도토스^{Herodotos, B.C. 484?-B.C. 43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혜^{sophia}에 대한 사랑^{philos}’을 의미했다. 이 용어를 특수하고 제한된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플라톤^{Plato, B.C. 428?-B.C. 347?}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이다. 이들에 따르면 철학이란 무엇보다도 사물의 궁극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사변적 작업이다. 철학에 이론적 과제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의를 함께 부여한 것은 스토아학과^{Stoicism}와 에피쿠로스^{Epikouros, B.C. 341-B.C. 270}학파의 철학이었다. 이들은 철학이란 삶의 지혜, 즉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한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의 지배 아래 있던 중세시대에는 신학이 곧 철학이었다. 교부철학^{patristic philosophy}이라고 불리는 초기 신학의 대표자들은 기독교의 신앙과 철학적 전통을 동일시했다. 반면 스콜라철학^{Scholasticism},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와 그 제자들은 신학의 우위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신학과 철학의 화해를 시도했다. 근대의 철학자들은 중세의 교권주의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고대의 철학적 전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철학에 자립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로부터 게오르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에 이르기까지 근대 철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정립된 견해, 즉 철학은 사물의 보편적인 본질

과 법칙에 관한 이론이라는 견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철학의 실천적 의의에 대한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주장도 함께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철학적 인식을 개별 과학, 특히 자연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천적으로 검증하거나 사회적 실천을 통해 확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흔히 철학은 시대와 사회적 토대를 떠나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 것처럼 주장된다. 그러나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모든 철학과 세계관은 그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특정한 사회계급 및 계층의 이해관계나 요구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철학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파적이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점은 의식적으로 세계관의 문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현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철학은 더욱 당파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3. 종교

종교^{religion}는 자연과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초자연적인 원인이나 목적으로 환원하거나 초자연적인 사건 또는 힘으로 표상하며, 인간은 이 초자연적인 목적이나 힘에 직접적으로 의존함으로써만 자신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다. 종교는 자연과 사회의 구체적 관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생활조건과 생산조건에서 비롯된 인식의 한계를 공포감이나 의존심과 같은 감정에 의해 발동된 사고와 상상을 통해 극복하려는 데서 기원했다. 초기의 종교 형태가 자연의 힘, 식물과 동물의 신성화와 연관된 것은, 원시시대의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낌으로써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 이후의 종교는 주로 역사와 사회발전의 맹목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관념에 대한 믿음 이외에도 모든 종교에서는 그 기원을 원시 제의^{祭儀}나 주술^{呪術}에 두는 종교적 예배와 여러 가지 의식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시인들이 주술적 의식의 수행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이 자

신들의 욕구와 의도를 달성해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역사 이후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의 수행과 금기에 대한 복종을 통해 그들이 현실의 억압적 조건과 맹목적인 힘에 대해 갖는 무력감을 위안받도록 만든다.

외형적으로 볼 때 종교는 철학과 함께 그 사회적 토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 아래서는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에 의해 대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신론적이고 아직 애니미즘animism이나 토테미즘totemism과 같은 원시적 형태를 극복하지 못했던 고대 종교들은, 노예사회의 쇠퇴기에 기독교에 의해 정복되었다. 동시에 기독교는 고대 종교들로부터 어떤 특징들, 예를 들어 유대교의 ‘구약Old Testament’에 나타나는 여러 선지자들의 교의, 여러 민족들에게 내려온 신의 고난과 죽음 및 부활에 관한 전설들, 그리고 동방의 다양한 민족들의 신화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대 철학, 특히 스토아주의의 속류화된 변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대중의 종교로서 나타났던 기독교가 지배계급에 의해 수용되면서 차츰 그것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채, 봉건적 위계질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로 발전했다. 종교개혁운동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은 봉건적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는데, 새로운 기독교가 주장한 신과 인간의 직접 소통이라는 생각,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호소, 그리고 절약과 근면 등의 미덕은 근대 시민계급의 요구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반영한 것이었다.

4. 도덕

도덕morality은 개인 활동의 규제,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개인 행동의 조정, 인간을 교육시키고 특정한 윤리와 관계를 창조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의 조정에 관련된 견해, 생각, 규범과 평가의 체계이다. 도덕적 의식은 개인의 보편적 세계관의 한 부분이며, 여러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이나 주위 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 선과 악,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 도덕적 이상과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의 가장 초보적이고 단순한 형태는 원시사회에서도 이미 발견된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생활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씨족이나 부족의 전통과 관습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규범과 특수한 도덕률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것들은 주로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나, 종교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오히려 종교가 적응해야 할 비종교적 의식들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도덕은 윤리학의 주제를 이루면서 철학적 지식의 한 분야가 되었다.

도덕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형성하거나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와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의 규제자로서 기능하고 노동이나 일상생활, 사회적 교제에서 인간 사이의 도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정한 도덕 정신으로 교육된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 즉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의무를 의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피한 데 대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질책한다. 인간의 도덕적 자각, 행위나 행위 양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자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평가는 양심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도덕이 갖는 특징은 그것이 국가의 강제적 집행력에 의해 지지되는 법과는 달리, 도덕규범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 제도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덕은 설득, 모범, 여론, 교육, 전통이라는 힘에 의해, 즉 개인이나 조직, 제도의 도덕적 권위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의 도덕률에 관한 윤리학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요구를 이타적 또는 이기적이라고 규정되는 영원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이해관계, 행복과 의무, 이기심과 자기희생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은 개인적 이해관계나 그들의 욕구와 열망을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일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든 도덕과 윤리체계는 그 시대와 계급적 특성의 각인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중세의 봉건적, 기독교적 도덕률이 봉건 귀족 및 성직자계급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했던 것처럼, 근대 시민사회에 지배적인 도덕과 윤리체계는 근대 부르주아 Bourgeoisie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근대로의 이행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도덕과 윤리체계들은 그것이 영원한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적 발전과 근대 부르주아계급의 발흥을 반영했기 때문에 봉건적, 기독교적 도덕률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물론 각각의 시대를 반영하는 상이한 도덕체계가 토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교체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이해관계가 종교를 지배하게 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인 규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의 윤리로 전화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5. 정치의식

정치의식은 사회의 정치 조직, 국가 형태, 다양한 계급과 사회집단들 간의 상호관계와 그들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이론화된 견해들이다. 그것은 현존하는 정치질서와 그 경제적 기초를 옹호하고 강화하거나 또는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의식은 정치의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 관계, 규범, 제도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한 견해를 체계화 내지 이론화한 것이다. 정치의식과 마찬가지로 법의식은 현존하는 법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변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사회적 의식의 이론화된 다른 형태들이 그렇듯이 정치의식과 법의식은 흔히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의해 논리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정치의식은 계급, 집단,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규범 및 가치와 정치적 관계에 대한 정치적 규율의 법전을 포함한다. 정치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중을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의식 내용을 대중을 위해 창출해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중이 정치의식적인 언명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적절한 정치적 구호에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대중이 그 정치이론과 사상에 의해 정립된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치의식이 반영하는 대상에는 권력과 지배를 지향하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 그것과 결부되어 설정된 정치적 목표,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견해들이 포함된다.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지배적인 정치의식은 바로 지배계급의 정치의식이다. 지배

계급의 정치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계급의 이해와 욕구에 대한 이념적 표현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정치의식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권력과 지배에 관한 물음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는 없으며, 대중이 받아들일 만한 형태를 그것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 시민계급이 이미 확고해진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까지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 봉건계급과 투쟁할 때, 자신들의 목적과 요구가 사회 전체의 공동 이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제 3 절

사회적 의식의 구조

1. 개인의식과 사회의식

사회발전에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법칙이 단순한 자연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실천 활동에 관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자신의 시대적 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사회의 발전법칙과 각각의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신비화하고 종교화함으로써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단순한 사회심리보다 체계적인 사회사상이,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인의식보다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사회의식이 갖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개인의식은 개인 자신과 함께 태어났다가 소멸하고 만다. 그것은 개인의 특수한 인생 경험이나 교육과정과 다양한 정치적·사상적 영향을 표현한다. 이에 반해 사회의식은 개인의식들의 특수하고 복합적인 총합으로서, 개인의 경험이나 그들이 받은 영향이 아니라 사회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의식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조용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의 변화를 따른다. 사회의식과 개인의식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침투한다. 모든 개인은 그의 일생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교육, 훈련에

의해 사회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설령 이 영향에 대한 그의 태도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선택적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의식규범은 개인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고 그의 신념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태도나 미적 관념과 감정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 개인에게서 나온 신념이나 사상이 개인적 실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행위 기준을 형성하면서 일반 의식의 한 부분이 될 때 그것은 사회적 소유가 되어 사회적 힘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2. 사회심리와 사회사상

인간의 사회적 생존 조건, 감정, 동기 및 습관의 형태를 띤 그들의 일상 활동 등은 보통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라고 불린다. 사회심리는 의견과 견해의 일반화된 체계라는 형태를 띠기보다는 주로 정서, 감정, 기분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사회심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견해는 이론적 표현을 갖기보다는 경험적 경향을 띠게 되며, 정서적 요소들과 뒤섞여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심리는 인간들의 일상 의식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일상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 조건과 활동 조건을 감정, 정서, 습관, 전통, 윤리와 관습, 욕구, 이해, 정신적 태도, 취미와 기호의 경향 등의 형태로 반영한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심리와 사회사상은 공통의 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모두 특정한 사회적 조건 아래서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로 표현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사회심리가 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반면, 사회사상은 광범위한 사회적 경험에 기초한다. 또 사회심리가 인간의 일상 활동과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일상 의식인 반면, 사회사상은 철학적·도덕적·미적·종교적인 견해와 명제들의 다소 정연한 체계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심리적 현상들은 의식과 무의식, 감정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혼재, 그리고 구조적 형상의 복잡성 등에서 사회적 의식의 보다 이론적인 표현 형태인 과학적 의식이나 사회사상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심리가 인간의 일상 활동과 교류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회사상은 특수한 지적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상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체계화된다. 이 때문에 사회사상은 때때로 그것의 객관적인 토대로부터 분리되어 창조적인 사상가들의 순수하게 개인적인 지적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며, 때로는 나아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이러한 사상가들의 능동적·주체적 역할이 사회의 객관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사회사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며, 현존하는 사회구조의 유지 또는 변혁을 지향하는 특정 사회계급의 입장과 이익 및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때만 현실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다. 가령 시민계급 발흥기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객관적 과정은 이 시기에 나타난 철학과 정치경제학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사상들이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일시적인 사회체제를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에 부합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신비화된 허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3. 사회사상의 역사적 성격

사상이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이며, 또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상이란 사회적·역사적 존재인 인간이 특정한 사회와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시대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상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은 개인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진 사회적·집단적 의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공통된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공통의 생활감정과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생활 속에서 공통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생활과정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것들이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체계화되면 사회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상이란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시대, 한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이해가 완전히 조화

될 수는 없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현존하는 사회경제체제가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들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내용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경제질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은 필연적으로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기 마련인 반면,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은 현존 질서를 비판하는 진보적인 사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 시대, 한 사회 안에는 항상 서로 대립하는 사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공존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동일할 수는 없다. 대체로 한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상은 그 사회의 지배층, 즉 현실의 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이며, 그 지배자적 위치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상은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함에 따라 변화된 사회질서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사상은 낡은 사상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낡은 사상은 결정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이에 반해 새로운 사상은 변혁을 위한 진보적인 사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낡은 사상은 퇴조하고 비로소 사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01

Chapter

근대 이전의 경제사상

원시사회의 경제사상

경제학은 흔히 근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근대를 탄생시킨 것은 시민혁명과 산업 혁명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전의 사회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내용도 복잡해졌다. 자연히 경제에 대한 사상과 이론도 복잡해지고 발달하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 - 1790의 『국부론』이 막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이 시작되던 시기에 발표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복식부기나 은행제도,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모두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생과 더불어 출현하거나 보편화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단순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사상이나 이론도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경험과 관습에 많이 의존했다. 경제활동의 내용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험은 곧 경제활동의 중요한 지혜이자 전통으로 존경받았다. 달의 기울기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파종할 시기와 수확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그런 경험을 넘어서 체계화된 지식이나 이론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근대 이전에는 경제에 관한 사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근대 이후 경제학과 경제사상의 발달과 비교해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시대의 경제사상들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했다는 뜻이다.

인류의 먼 조상들이 수행한 최초의 경제활동은 나무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채집·어로·수렵 등이었다. 이런 경제활동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지는 못했고, 자연에 존재하는 먹을거리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수렵과 함께 목축의 흔적도 보이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사료잡은 들짐승을 일시적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은 훨씬 이후에 가서야 나타난다. 유럽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이나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원시사회의 경제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들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

되는 조개무지^{貝塚}도 그러하다. 돌칼 같은 유물들을 보면 인류의 조상들은 매우 일찍부터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장류의 일부나 새들 가운데도 나뭇가지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먹이를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이 사용한 도구는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을 가공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구의 사용과 함께 원시사회의 경제활동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인류의 조상들이 일찍부터 집단을 이루어 생활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의 인류는 생산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집단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집단을 이루어도 인간은 자연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여전히 먹을거리가 풍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늘 일어나는 결핍과 기아의 위협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원시사회에서는 분배가 지극히 평등했다는 사실이다. 원시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평등분배는 발달한 사회제도나 목적의식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아니다. 겨우 생존을 유지할 정도의 먹을거리밖에는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굶어야 하는 것이 원시사회의 질서였다. 평등한 분배는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원시사회를 원시 공동체 사회라거나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원시시대의 인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사상을 가졌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말 그대로 원시시대에는 아직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대의 인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의 경제사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볼 만한 방법은 있다. 아메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문명과 격리되어 있다 보니, 유럽인들이 진출할 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원시 공동체에 가까운 사회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경제사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측면은 분배와 소유의 평등이다. 특히 인류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재료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토지는 그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신성한 대상이다. 이런 경제사상은 모호크족의 위대한 추장인 시애틀^{Seattle}의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 1854년 미국 정부는 원주민 부족들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원주민들은 강제로 내쫓길 것이 뻔했다. 이에 시애틀

틀 추장은 당시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 Franklin Pierce, 1804-1869에게 편지를 보낸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냈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할 일이다. 그의 부족은 숫자가 많다. 그들은 초원을 뒤덮은 풀과 같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적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드문드문 서 있는 들판의 나무들과 같다. 백인 대추장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충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Chief Seattle's Letter*¹

땅은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위대한 자연의 것이므로 사사로이 팔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시애틀 추장의 사상은 경제사상이 경제현실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원시시대의 인류는 공동소유라는 사상을 먼저 가짐으로써 그러한 사회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시 공동체 사회의 특수한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제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경제사상과 사회사상이 언제나 경제적 현실과 사회현상들을 수동적으로 반영하고, 그것들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거꾸로 사회사상은 사회현실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의식적인 실천 활동이 사회의 변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 실천에 합목적적인 방향성과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사회사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도 한다.

1 *Chief Seattle's Letter*(<http://www.csun.edu/~vcpsy00h/seattle.htm>)